

2020

제5호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문화정책 이슈페이퍼

The Art Must Go On - 예술활동의 뉴노멀에 대하여

Editor's Letter

칼럼

특집

문화정책이슈 1

문화정책이슈 2

문화정책이슈 3

조사보고서 갈무리

예술 + 장애

문화정책 뉴스 클리핑

위기의 그늘을 벗어나는 가치 - '같이'

The Art Must Go On - 예술활동의 뉴노멀에 대하여

국·공립문화시설의 새로운 뉴노멀에 대한 전망

예술활동의 위기와 예술인 권익지원센터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세계 문화예술계 연대의 모습들

코로나 시대, 문화예술활동 인식변화 설문조사 결과

그냥 내게도 예술이었다

0708

EDITOR'S LETTER

칼럼 - 이상헌(춤 비평가) [위기의 그늘을 벗어나는 가치- '같이']

“뉴노멀’은 기존 ‘노멀’과 같은 층위가 아니라 더 낮고 넓은 것이어야 한다. 기회와 위기를 ‘같이’ 감당하고 헤쳐갈 수 있는 낮은 평균 말이다.”

이슈1 - 서승우(영화의전당 공연예술팀장) [국공립문화시설의 새로운 뉴노멀에 대한 전망]

“단순히 프리젠틱만 하는 형식의 공연장이 아닌 지역의 예술적 자원을 끌어안고 그야말로 제작을 해야 하는 지역예술 생산의 거점이 되어야 한다.”

이슈2 - 차재근(문화소통단체 숲 대표) [예술 활동의 위기와 예술인 권익센터]

“예술은 항상 예술만의 언어로 불특정 다수에게 말을 걸고 이야기를 하고 사회의 아픔을 함께하자고 말한다.”

이슈3 - 장수혜(공연예술프로듀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세계 문화예술계 연대의 모습들]

“세계적 위기 속에서 예술가와 예술단체, 그리고 시민들은 성숙한 연대의식을 통해 회복을 가속화하고 있다.”

조사보고서 갈무리 - 원향미(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연구원) [코로나 시대, 문화예술활동 시민 인식 설문조사 보고서]

“사라질 수 없는 보편적 일상이 문화예술활동이며, 이를 위한 예술인 생계 지원 등에 대해서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예술+장애 - 우정아(한국장애인복지문화센터장) [그냥 내게도 예술이었다]

“나의 바람은 장애예술인, 비장애예술인 구분 없이 사람과 사람 간의 작은 연결이 일상에서 시냇물처럼 흘러 높은 파고의 멋진 바다로의 향연이 되었으면 한다.”

위기의 그늘을 벗어나는 가치 - '같이'

이상헌 춤 비평가



'SOS with Survival Light' 퍼포먼스

예술계가 '코로나19'로 수렴되고 확산하는 듯하다. 예술 활동은 위축되고 위기의 그늘은 짙어간다. 20세기 들어서면서 예술은 더 이상 예술가라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특별한 활동이 아니라는 인식이 생겼다. 예술이 예술가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뜻인데, 예술가와 비예술가 구분도 모호해졌다. 그런데도 예술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전업 예술가라 부른다. 예술가를 규정하는 철학적, 미학적 규정은 예술이 직업이고 노동이라는 현실적인 기준 앞에서 무력해졌다. 코로나19는 사회의 가장 약한 곳에 깊은 상처를 주었고 불행하게도 전업 예술가도 거기에 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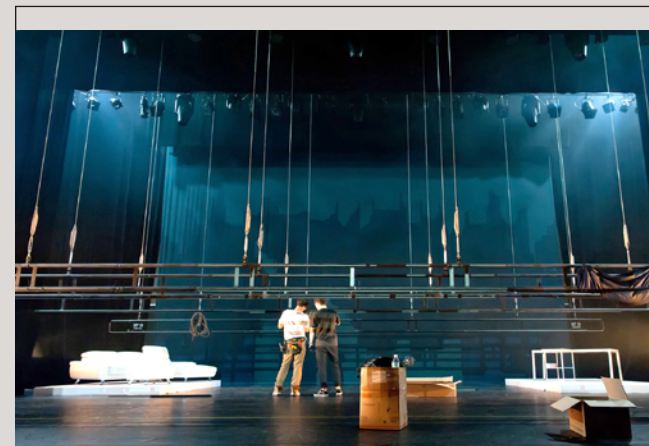
지난달 17일 오후 9시경 부산시청 앞 광장에는 낮은 풍경이 펼쳐졌다. 공연 조명 기계를 실은 트럭에서 조명기와 콘솔이 내려졌고, 광장 바닥에 설치한 수십 대의 조명기에서 나온 빛이 시청 건물 위 상공 한 지점에 모였다. 빛은 규칙적으로 점멸하며 국제적 조난 신호인 SOS를 표시했다. 이 퍼포먼스는 (사)부산문화공연기술협회가 코로나19로 축제, 공연이 취소된 후유증으로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는 축제, 공연 기

술 종사자들의 사정을 알리기 위해 벌인 'SOS with Survival Light' 퍼포먼스였다.

이에 앞서 부산민예총 무대예술위원회(아래 '무대위')는 '부산지역 공연·축제 기술 관련 종사자 생존 대책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언론에 배포했다. 성명서에서 '무대위'는 부산시가 전면 취소한 축제를 감염 예방 수칙을 지키면서 재개할 것을 호소했다. 이들은 질병관리본부가 내린 예방지침이 기본 가이드라인이고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산시가 이를 이유로 축제를 무조건 취소했다면서, 강원도 인제·고성에서 있었던 드라이브인 콘서트 예를 들었다. 감염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시민을 위한 축제를 시민과 아무런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이 최선이었는지 의문이다. 인제·고성의 드라이브인 콘서트, 보성의 비대면형 머드 축제는 부산시와 같은 상황에서 다른 방법을 택한 경우다. 부산시는 축제 취소가 가져올 문제에 관해 고심하지 않았던 것 같다. 얼마나 많은 예술가, 스태프가 일할 기회를 잃을 것이며, 폐쇄적 생활에 지친 시민들이 잠시나마 숨을 쉴 기회를 무산시켰다



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 이것뿐만 아니다. 성명서 발표 후 부산시 관계자와 면담에 참석한 '무대위' 회원들은 부산시의 공연·축제 기술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인식에 큰 상처를 받았다. 부산시 관계자에게 공연·축제 기술 관련 종사자에 대한 인식이 아예 없었던 것이다. '무대위' 성명서에는 이른바 축제·공연 스태프(Staff)로 부르는 공연·축제 기술 관련 종사자가 공연예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창작자라고 말한다. 축제·공연 스태프는 눈에 띄지 않게 검은 옷을 입는다. 무대 조명 밖 어둠 속이나 객석과 떨어진 조정실에 있고, 야외 공연·축제 현장에서는 관객 뒤에서 무대를 응시하는 그들에게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런데 음향, 조명 없는 공연을 상상해 보았는가. 세트를 설치하고 영상을 비추고, 필요에 따라 소품을 갖다 놓고 치우는 이들이 없다면 공연이 어떻게 되겠나. 조명으로 맥락을 만들고, 소리로 작품의 내용을 전달하고, 세트나 영상으로 상황을 제시하는 일은 기술을 넘어 창작의 한 부분이다. 이들이 만들어 내는 것은 행복, 만족, 흥분, 열정 같은 것이다. 이탈리아 출신의 사회학자·철학자 마우리치오 라자라토(Maurizio Lazzarato)는 이런 결과를 내는 노동을 '비물질노동'이라 말한다. 예술가의 노동과 축제·공연 스태프의 노동은 '비물질노동'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같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술가로 인정받지 못하고 공연이나 축제에 묻혀 잘 드러나지 않는 기술 때문에 코로나 19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잊힌 존재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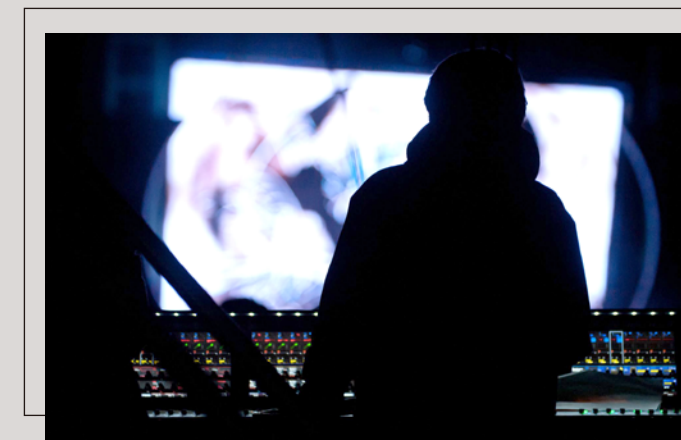


'무대위' 성명서와 시청 앞에서 펼친 퍼포먼스는 예술이 코로나 시대를 헤쳐 나갈 때 필요한 중요한 사실을 알리고 있다. '같이'의 가치다. 축제 하나를 취소하면 음악가, 무용가, 배우, 스태프 등 많은 사람이 '같이' 어려움을 겪는다. 예술은 관계에서 생성되고 공동체 안에서 존재한다. 공동체를 위한 예술, 공동체의 예술이 된다는 말이다. 축제·공연 스태프들은 성명서와 조명 퍼포먼스를 통해 '같이' 위기의 그들을 벗어나자고 말한다.

예술계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이 조금씩 늘고 예술계도 언택트 시대에 필요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공모한 '언택트 시대의 예술과 기술 연구자 모집' 사업은 예술계가 현재 고민하는 지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노력에도 중요한 무엇인가가 빠져있다. 바로 '예술가'의 생존 문제이다. 어떠한 미학적, 기술적 방법도 그것을 구현할 예술가의 생존이 우선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언택트 시대에 예술의 적응 방법을 고민할 때 예술가 생존을 위한 근본적인 방법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예술가 기본소득'이 하나의 방법인데,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가 필요한 만큼 쉽지 않다. 하지만 언젠가 이루어야 한다면 지금

이 시작하기에 적절한 시기다. 공동체의 기저를 넓게 떠받치는 계층이 건강하지 않으면 공동체는 기형적으로 변한다. 공동체의 가치가 왜곡되고 계층 간 불균형이 극대화해 배제와 소외가 당연시될 것이다. 약한 곳을 위한 새로운 기준, 그것이 '언택트' 시대에 필요한 '뉴노멀'이다. 예술가 기본소득에 접근할 때도 '노멀' 보다 낮은 기준의 '뉴노멀'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코로나19가 사회의 가장 약한 곳을 파고들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야 한다고 알려준다. '뉴노멀'은 기존 '노멀'과 같은 층위가 아니라 더 낮고 넓은 것이어야 한다. 기회와 위기를 '같이' 감당하고 헤쳐갈 수 있는 낮은 평균 말이다.

사회적 가장 약한 계층에 속하는 예술가들은 이때까지 스스로 돌보기보다 사람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자연과 공동체의 숨은 문제를 끄집어내어 건강성을 회복하는 역할을 했다. 그런 예술가가 위기의 그늘에 갇힌 채 허덕이고 있다. 이제 공동체가 예술가에게 '같이' 살아가자고 손을 내밀어야 할 때다.



The Art Must Go On

예술활동의 뉴노멀에 대하여

- 이슈1** - 서승우(영화의전당 공연예술팀장) [국공립문화시설의 새로운 뉴노멀에 대한 전망]
- 이슈2** - 차재근(문화소통단체 숨 대표) [예술 활동의 위기와 예술인 권익센터]
- 이슈3** - 장수혜(공연예술프로듀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세계 문화예술계 연대의 모습들]
- 조사보고서 갈무리** - 원향미(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연구원) [코로나 시대, 문화예술활동 시민 인식 설문조사 보고서]

1991년 발표된 그룹 Queen의 'The Show Must Go On'은 리더 프레디 머큐리가 생전에 남긴 마지막 노래입니다. 목전에 다가온 죽음의 고통을 이겨내면서 그가 남긴 이 노래는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 고사 직전에 와 있는 문화예술계의 상황과 오버랩되고 있습니다.

최근 부산시청을 물들인 조명 퍼포먼스는 코로나의 장기화에 따른 공연예술업계의 위기를 알려내는 상징적 시위였습니다. 이제 다시 문화예술이 일상으로 돌아와야 하고, 이를 위한 정책적 실행이 시급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문화정책이슈페이퍼 제5호의 이슈는 'The Art Must Go On - 예술활동의 뉴노멀에 대하여'입니다. 코로나 이후 문을 닫았던 국공립문화시설이 운영을 재개하면서 어떤 새로운 뉴노멀을 준비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지속되고 있는 예술인의 위기상황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예술인권익센터 개소 소식과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세계 문화예술계의 다양한 연대활동들을 소개합니다. 영화의 전당과 공동으로 기획하여 조사한 코로나 시대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시민인식 설문조사 결과도 함께 실었습니다. 예술활동의 새로운 기준에 대한 고민을 함께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위기로 인해 우리 사회는 그간 간과했던 문제들과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안전망에서 벗어나 있는 사회 구성원들을 돌아보고 있으며, 공공이 지켜야 할 가치와 태도에 대해서도 새로운 각도의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연대의 가치가 어느 시기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을 들여다보고, 사람을 이어주는 문화예술의 가치가 우리 사회 뉴노멀의 중요한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국공립문화시설의 새로운 뉴노멀에 대한 전망

공공 공연장을 중심으로

서승우 영화의전당 공연예술팀장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미증유(未曾有)의 코로나19 사태가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의 변화와 위기를 몰고 왔다. 문화예술 분야, 특히 현장성과 대면 접촉을 기본으로 하는 공연예술 분야에 대한 타격이 심각하다. 세계 주요 공연장들이 폐쇄되고 재개 시점이 불투명한 지금, 국내 공공 공연장들은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공연장을 제한적으로 열고 닫는 조치를 반복하고 있다. 앞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위기 상황에 주요 공공 공연장들의 대응 현황과 방식을 먼저 공유하면서 위드 코로나 시대에 지속가능한 예술 활동을 위한 뉴노멀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한다.

무슨 일이 있었나?

지난 6개월 동안 국내 모든 공연장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잠시 멈춤'이라는 공통 경험을 가지면서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각기 다르게 대응해 왔다. 지난 2월 23일 코로나19 관련 경계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전국의 공연장이 4월 19일까지 임시휴관에 들어갔다가 4월 20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에 따라 좌석 지그재그 한 칸 띄어 앉기 및 예매를 통해 공연장을 재개관하여 운영하였다. 그러나 수도권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지난 5월 29일 실시된 정부의 수도권 등 방역조치가 무기한 연장되면서 다시 문을 닫았다가 7월 19일 수도권 공공시설 운영제한 조치 완화 결정에 따라 7월 22일부터 운영을 재개했다. 이 시기 국공립 공연장의 폐쇄와 바로 이어진 좌석 지그재그 한 칸 띄어 앉기 및 강도 높은 방역(발열체크, 문진표 작성, 시설 상시 소독 등)은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했고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금방 끝날 것 같았던 코로나19는 우리 곁을 떠나지 않았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확실한 미래로 우리를 인도하기에 이르렀다. 그로 인해 수많은 예술가들과 문화예술 단체들이 곤란을 겪었고 힘들어했고, 심지어 생계의 위협까지 받아야 했지만 공공 공연장의 일방적인 조치는 이어졌다. 공공 공연장

을 운영하는 주체가 대부분 공무원이거나 준 공무원이다 보니 코로나19 감염증 확산방지 및 예방을 위한 당연한 조치이고 그 행정명령을 거부할 수 없었다. 또한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 및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부담을 감당할 수 없기에 공연장 폐쇄와 좌석 지그재그 한 칸 띄어 앉기 등의 세부지침을 이행할 수밖에 없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1항에 의해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건립된 문화시설인 공공 공연장이 너무나 쉽게 예술가와 시민을 외면하게 될 줄 알았을까? 철학 없이 운영되고 있는 국공립 공연장의 민낯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온라인 공연은 대체재인가 보완재인가?

코로나19와 함께 공연예술계에서 자주 듣게 된 단어가 '언택트', '비대면', '온라인', '영상화', '방구석 1열' 등이다. 공공 공연장에서도 초기에 앞 다투어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직접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한 공연장도 있고, 다른 국내외 공연장 및 예술단체들의 온라인 공연 영



상을 온라인을 통해 제공하기도 했다. 또한 제작비용과 인력이 부족한 공공 공연장에서는 과거에 진행했던 기획 공연 중 단순 기록용으로 보관된 영상을 제공하면서 온라인 공연이 라이브 공연의 대체재가 된듯 한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콘텐츠의 퀄리티, 플랫폼의 문제, 수익 구조, 저작권, 제작비 등 여러 가지 이슈들이 제기되면서 주춤하고 있는 실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부각된 공연영상물은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과 유럽의 공연장 및 단체를 중심으로 서비스가 되고 있는 인기 아이টে이였다. 뉴욕메트로폴리탄오페라, 영국 내셔널 시어터의 라이브 영상은 전 세계 공연 팬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다. 2006년 <마솔피리>로 론칭한 메트로폴리탄오페라의 Live in 성공요인은 뉴욕에서만 볼 수 있는 오페라를 영화관에서 20달러 정도의 가격으로 라이브로 관람한다는 것과 공연의 현장성을 결정짓는 Here & Now에서 Here는 아니지만 Now는 충족시켰기 때문이다. 여기에 자극을 받은 영국 내셔널 시어터가 NT Live를 론칭하였고 처음부터 유료 모델을 구축해 높은 수준의 영상 퀄리티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공연영상화 사업에 대한 개념이 없던 2013년에 예술의전당이 `SAC On Screen` 사업을 시작했다. 사업 초기부터 지금까지도 공연 아카이빙의 확장 정도로 생각했던 사업인데, 이번 코로나19 이후 각광을 받고 있다. 당초 아카이빙을 위한 현장성을 살린 라이브 상영과 이를 편집 과정을 통해 더욱 재미있고 실감나는 영상으로 제작하여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배급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공연 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였다. 공연 영상 시장은 공연 시장이 먼저 단단하게 형성된 뒤에 그 관객의 일부가 파생되는 양상이 주요하기 때문에 공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진입할 가능성은 낮다. 관심

은 있으나 티켓 가격이 부담이 되었던 사람들, 물리적인 시간과 거리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시장이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국내는 아직 공연시장 규모 자체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성장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나는 공연예술의 특성상 온라인 공연이 라이브 공연의 대체재가 될 수는 없다. 이 시기 잠시 초기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강화할 때 공연의 생산자인 예술가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온라인 공연이 라이브 공연의 보완재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공공 공연장의 역할

미증유(未曾有)의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너무나 쉽게 예술가와 시민을 외면한 공공 공연장의 역할을 생각해 본다.

공공 공연장은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설치'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인프라이다.¹⁾ 문화향유에 대한 공공성과 형평성, 평등성, 접근성 그리고 문화예술, 복지, 창조 등과 같은 공공적 가치를 구현시킬 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적재원을 투입해서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 공연장은 예술과 시민의 만남을 주선시키는 문화예술 향유의 장이며 '공연법'의 적용을 받아 실연을 담당하는 공연장을 말한다.²⁾

우리나라의 경우 6,70년대 산업화 시대를 지나 1980년대 중반에 들어서 제5공화국 국정지표에 '문화 인프라 확충'이 포함되면서 문화예술회관 등의 공공 공연장 건립이 본격화되었다. 공공 공연장 시설을 대변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은 1984년 '지방문화 중흥 5개년 계획'을 기초로 건립되기 시작하여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공연예술이 소수의 혜택만이 아니라 다수에게 정당하게 배부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문화의 복지화', '문화의 민주화' 논의 확산에 따라 공적자원이 공

연장 설립에 투입되어 현재 전국에 255개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되어 운영 중이다.³⁾

공공 공연장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 정책을 최우선으로 실현하는 기관으로서 시민들의 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고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공연장에서 제작되고 공연되는 프로그램은 개인에게 하나의 감정구조를 만들어 내고, 감정 구조가 모여 그 시대의 문화를 만들어 내기도 하며 공공 공연장의 이러한 역할이 시대적인 틀(paradigm)을 변화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공공 공연장은 물리적으로 체형의 공간이다. 또한 공연예술을 실현하는 공간으로서 그 안에서 발현되는 모든 프로그램은 이러한 공간의 복합적인 역할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⁴⁾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이러한 공공 공연장의 비능률성을 해소하고 시장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우선시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이론의 등장으로 공연장에 내포된 문화적, 예술적 이념과 이윤추구 그리고 이해관계의 상호작용 속에서 시장지향성과 공공우위의 분배적 성격 유지라는 상호 모순된 개념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⁵⁾ 이러한 결과 대부분의 공공 공연장에서는 단기적인 정량적 성과를 기준으로 하는 경영평가에 집중하기 위해 대중성과 흥행성이 있는 콘텐츠를 선택하여 지역의 관객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 공연장의 뉴노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공공 공연장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미래에도 반복될 수 있는 팬데믹의 대비는 물론 위드 코로나 시대에 지속 가능한 예술 활동을 위한 뉴노멀은 무엇일까?

첫째, 공연장의 물리적 환경에 변화가 예상된다. 최대한 대면접촉이 없도록 온라인 예매와 모바일 티켓을 활용한 입장, 키오스크 등의 무인발권 시스템을 통해 티켓을 발권하고 입장하는 즉 공연 관람만을 위한 비대면 시스템이 도입될 것이다. 또한 관객들이 입장하기 전 생활 방역 인력⁶⁾들에 의한 방역은 물론 입장 시에도 마스크 착용과 문진표 작성, 손소독, 발열 체크 등 철저한 방역을 실시하며 공연 관람 시에도 모두 마스크를 끼고 침묵한 채 무대를 바라보기 때문에 어

떤 시설보다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곳이라고 인식하게 될 것이다. 둘째, 공공 공연장은 고퀄리티의 공연 영상화 작업이 가능하도록 시설을 확충, 스튜디오 형태로 운영하여 필요시 지역의 예술 단체와 예술가들에게 무대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 공연의 아카이빙 기능은 물론 공연 홍보와 유통, 배급에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위드 코로나 시대에는 국가 간 이동 제약 및 격리조치 등으로 국제 교류는 점점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에 해외 아티스트 공연이 쉽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아니라 로컬라이제이션이 부각될 것이고 이는 지역의 예술가를 발굴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 예술가들을 발굴하고 양성하여 관객들과 만나는 기회들을 공공 공연장에서는 더 많이 만들어내야 한다. 지역 공공 공연장을 통해 지역의 예술가를 재발견할 수 있는 참신한 기획이 지역 공연장 연대를 통해 만들어져야 한다. 그러다 보면 단순히 프리젠티엄 하는 형식의 공연장이 아닌 지역의 예술적 자원들을 끌어안고 그야말로 제작을 해야 하는 지역예술 생산의 거점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발굴된 지역의 예술가를 국내·외에 알리는 방법으로 온라인 스트리밍, 중계가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로 이동이 제한된 시기에 공연 영상물은 국제 교류 행사로서 좋은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1) 이병일, 지방자치단체 공연문화시설 운영성과의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 2) 유주연, 공공공연장의 사회공헌 프로그램 역할과 관련 정책 적합성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 3) 2019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문화체육관광부, 2019년 12월
- 4) 조은아, 2015 국내공연장 브랜드 가치 창출과 프로그래밍 전략을 위한 심포지엄
- 5) 유주연, 공공공연장의 사회공헌 프로그램 역할과 관련 정책 적합성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 6)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시설에서 발열 체크, 소독, 청소, 방역물품 전달, 방역수칙 준수 지도 등 업무를 하는 인력

예술 활동의 위기와 예술인 권익센터

차재근 문화예술소통단체 슝 대표

“예술은 사회의 악을 걸러 주는 걸음망이다.”

예술이 사회에서 하는 역할은 다양하다. 어려운 이를 위한 목소리, 부조리함에 대항하는 몸부림 등, 예술이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이유는 무수히 많다.

이런 역할을 하는 예술가들이 지금은 곤경에 빠져 있다.

작업실을 운영하는 작가, 미술인, 연습실을 운영하는 무용인, 연극인 등 대부분의 예술인들은 개인이든 단체든 자신들이 작업을 하는 공간을 가지고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수입이 전무한 상태에서 작업실 임대료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고 고사 직전에 이르고 있다.

예술인의 수입은 전시나 공연, 축제, 문화예술교육 등에서 초청이나 판매, 교육을 할 때 발생하는 수입이 대부분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예술인들의 활동이 줄어드는 정도가 아닌 경제적인 수입 또한 전무한 상태로 모든 활동을 접고 경제적 지출을 최소화하는 은둔 생활을 하는 실정에 이르렀다.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 실태조사에서는 개인 예술 활동 수입 평균 1,281만 원, 개인수입 1,200만 원 미만인 예술인들이 72.7%라고 발표했다.

위 내용대로라면 동사무소에서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등록을 통해 정부에서 보장하는 국가 보장 제도에서 사회복지, 주거, 교육, 의료, 긴급 지원 등 많은 부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자신의 가난함을 스스로 증명하는 일이 예술가들에게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일반 시민들과는 다르게 사회 정보에 밝지 않은 예술인들은 생활의 어려움이 있을 때 정부나 지자체, 주변 기관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실조차도 모른 채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경우가 많다. 코로나19는 예술인들에게도 많은 변화를 주고 있다. 지금까지는 현실적 어려움을 다른 일에서 해결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조차도 어려운 실정이 되니 정부의 지원이 무엇인지 알고 시민으로서 당당히 요구해야 될 시기가 온 것이다.

사회 주변을 둘러보면 다른 분야인 노동, 장애인, 여성 등 사회 분야에는 분야별 권익, 인권센터 등이 있어 사회생활 또는 직장, 가정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면 도와주고 해결해주는 기관 또는 민간 기관들이 오랜 기간 존재해왔는데 유독 예술인에 대해서는 어떠한 도움도 받을 만한 기관이나 기구가 없는 것이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집을 구하는 일에서부터 크고 작은 어려움들에 부딪치게 된다. 하지만 예술가들은 그 어느 곳에도 속해 있지 않아 어려움을 호소할 곳이 마땅치 않다.



지난 6월 22일 부산예술인권익센터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공공에서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부산광역시 행정 연구회 사회복지사, 민간의 사회복지협의회, 부산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변호사, 변리사, 노무사, 경찰 등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부산예술인 권익센터는 예술가들이 힘들 때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곳으로 예술인이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을 때 힘이 되어 주기 위해 만들어졌다.

센터가 만들어 지고 나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예술가들이 있다. 그 중에서는 자신의 이야기만 하고 끊어 버리는 경우도 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받는 입장에서 자신의 이야기만 하고 끊어버리는 것이 처음에서 황당한 생각도 들었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그 동안 예술가들이 얼마나 자신의 이야기를 할 곳이 없었는가가 드러나는 것이다.

어쩌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었다. 예술은 항상 예술만의 언어로 불특정 다수에게 말을 걸고 이야기를 하고 사회의 아픔을 함께하자고 말한다. 하지만 정작 예술인 자신들에게는 너무나 웅색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을까. “아픈 것은 소문을 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제는 예술인들도 자신의 어려움과 아픔을 나누고 이야기 할 때이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세계 문화예술계 연대의 모습들

장수혜 공연예술프로듀서

2020년 7월 17일, 전국 50여 곳의 밤하늘에 다섯 개의 빛줄기가 비쳤다. 소셜미디어에는 #봉화를올려라 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조명 퍼포먼스 영상과 사진들이 가득했다. 이날, 전국 500여 개의 공연기술 업체들은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을 응원하고, 줄줄이 취소되는 공연예술행사와 공연예술 스태프들에 대한 안전 메뉴얼이 확보되지 않은 업계의 상황에 대해 호소를 보내고자 했다. 국가의 위기 상황에 피우는 봉화를 상징하며 마치 누군가에게 SOS 신호를 보내는 듯한 빛이었지만 한편으로는 희망의 빛이기도 했다. ‘힘을 내자. 누군가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함께 하자.’

갑자기 전 세계는 세계화에서 고립의 상태로 변했다. 포옹과 키스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로, 물리적 접촉에서 비대면으로, 극장과 국경은 닫혔고 위기의 상황 속 사회적, 경제적 불균형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특히 서비스업 종사자, 예술가, 계약직 근로자,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수많은 세계 시민들이 타격을 받았다. 그러나 피해는 알려야 하고 개선되어야 한다. 마치 공연기술업 종사자들이 하늘에 빛을 비추었듯이 누군가는 나서야 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이를 지지하는 타인과의 연대가 생성되어야 그 목소리가 들릴 수 있다. 이처럼 전 세계에서는 회복과 생존을 위한 다양한 연대의 모습들이 포착되었으며 또 이를 지지하기 위한 국가 및 기관 차원의 시도가 이루어져 예술가들과 시민들의 사회적 참여는 변화와 회복을 위한 큰 역할을 해내고 있었다.

연대를 복돋는 유럽 기관들의 주도



유러피안문화재단
Culture of Solidarity Fund 웹사이트

기관의 적극성과 민첩성, 민간단체의 강하고 논리적인 의견 전달, 전문 인력양성, 유연하고 지속적인 지원 중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려면 무엇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할까? 물론 이 중, 그 어느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과정은 없다. 다만, 지금의 긴급상황에서는 ‘어떻게’가 더 큰 화두가 될 수 있다. 코로나19가 팬데믹으로 전파된 지난 4월, 유럽의 각 기관들은 재빨리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이를 데이터화하여 공유하였다. 이를 토대로 문화예술기관들에게는 현장과 ‘어떻게’ 소통하고 ‘무엇을’ 지원할 수 있을지 재빠르게 알아차리는 역량이 요구되었다. 각국의 긴급 지원대책이 마련됨과 동시에 다양한 공모성 기금프로그램들이 추가로 마련된 가운데, 유럽의 주요기관에서는 ‘예

술계의 연대’에 집중했다. 유러피안 문화 재단(European Cultural Foundation)은 시민과 예술가들의 연대의 문화를 기금으로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듣기 위한 공모형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했다.¹⁾ 1차 공모에서 젠더, 인종차별, 이민자, 거리예술 등을 주제로 한 권역별 29개의 프로젝트가 선정되었고 현재 2차 공모를 앞두고 있다. 유럽의 젊은 축제 인력 개발을 위한 페스티벌 아카데미(the Festival Academy)에서는 연대를 위한 페스티벌의 리스트를 제공하고, 각종 온라인 토론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²⁾ ³⁾ 이와 같은 온라인을 통한 정보공유와 토론의 장을 장려하기 위해 유네스코에서는 #ResilliArt (레질리아트)운동을 시행했는데, 예술의 복원력을 긍정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가상 토론을 중심으로 문화예술계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있다. 지난 7월, 문화체육관광부 및 유관기관이 예술정책의 미래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코로나19 예술포럼’ 역시 유네스코의 레질리아트와 연계한 온라인 포럼이었다.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예술은 그 어느 때 보다 더 가깝게 우리를 모이게 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전 세계의 문화예술인들에게 이 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세계보건기구(WHO) 또한 문화예술을 통한 세계 시민들의 연대를 강화하고자 대중음악, 시각예술, 필름 페스티벌 등을 개최하여 평화와 회복의 운동을 유도하고 유명인들과 음악인들이 참여한 #TogetherAtHome (함께 집에서)캠페인을 통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홍보했다.⁴⁾

뭉쳐야 살고, 정보는 힘이다

정부 및 비정부기관들의 다양한 캠페인과 시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해는 회복되지 못했고 코로나19의 여파에 폐쇄되는 극장들과 문화예술계의 예산삭감에 민간단체와 예술계의 리더들이 연대를 이루고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유럽의 현대 공연예술 네트워크(IETM, International network for contemporary performing arts)은 문화예술기관 및 연합들과 함께 영국을 포함한 유럽 연합국에 문화예술계를 위한 강경책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⁵⁾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술가와 예술종사자들에게 실업 수당과 사회적 혜택에 대한 접근권을



IETM 성명문 표지

주고,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그들의 손실을 보상해 준다. ▲유럽연합 코로나19 대응 투자를 통해 문화와 예술을 지원한다. ▲문화부와 예술 위원회의 기존 예산 외에, 문화 분야를 위한 긴급 자금과 어려운 자금을 조성한다. ▲수혜자가 활동을 연기할지, 취소할지, 전환할지, 또는 자금 지원을 받는 프로젝트의 주기를 연장할지 결정할 수 있도록 모든 기존 자금 조달 계획에 유연성을 적용한다.▲2020년 이후에는 문화와 예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문화와 예술의 부활과 지속 가능성을 목표로 한다. ▲국제 교류 예산은 지역 예술계의 역량 강화와 발전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보존해야 한다. ▲예술가들의 직업, 관습, 활동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고 예술가들의 표현의 자유, 사회적, 재정적 인식, 개인적 행복을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예술가의 지위에 대한 현재의 성격에 대한 광범위한 논쟁을 시작한다. ▲미래의 위기와 강제 노동 상황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보편적인 기본 소득의 도입 가능성을 탐구하라. ▲문화와 예술을 경제적, 사회적 재생과 미래 전환 전략에 통합하여 시민의 복지에 엄청난 가치를 부여하고, 동시에 국민들을 하나로 묶는 역량을 인정한다.

IETM은 또한 각종 보고서와 데이터 공유를 통해 현재 피해 상황을 알리고 각 문화예술단체와 개인들이 연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왔다. 이 외에도 유럽 각국의 정부 단체와 유럽연합을 향해 장르별, 기관특성별 예술 네트워크와 연합들이 작성한 성명서와 청원이 끊임없이 올라왔으며 문화예술계 주요인물들과 리더들의 적극적인 서명과 참여를 촉구했다.

또한, 미국 예술가들의 연대 또한 주목해 볼 만하다. 크리에이팅 뉴 퓨처스(Creating New Futures, 비공개그룹)는 코로나19로 피해를 겪고 있는 미국 예술가들의 네트워크이자 연대 모임으로 축제 기관, 문화예술기관들의 권력적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예술가의 권리를 요구하고자 만들어진 단체이다. 이 단체는 몇 주간의 정보 수집과 토론을 통해 공연 예술 단체를 초청하는 축제와 예술기관을 위한 윤리와 공정성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업계의 권력체계를 지적하며 예술가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파트너로서 대할 것을 강조한다. 또한 최근 공연예술의 디지털화와 갑작스런 취소 및 연기 요청에 피해를 입은 예술가들에게 어떠한 태도로 대화하고 어떻게 계약해야 할 것인지 정확한 근거를 토대로 가이드를 제시한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는 문화예술기관들에 따끔하고 정확한 목소리를 제시한 이 가이드라인은 현재까지도 개발 중이며 그 작업과정이 공개되고 배포되고 있다.

- 1) 유러피안문화재단, 연대의 문화 펀딩프로그램 <https://www.culturalfoundation.eu/culture-of-solidarity>
- 2) 페스티벌 아카데미, 연대를 위한 축제들 <https://www.thefestivalacademy.eu/en/covid-19/>
- 3) 유네스코, 레질리아트 <https://en.unesco.org/news/resiliart-artists-and-creativity-beyond-crisis>

콜 아웃,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예술기관에 던지는 시민들의 함성

코로나19와 함께 환경오염, 인종차별 등 시민들의 가치에 손상을 입히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드러나며 사회적 긴장감을 더욱 악화시켰다. 지난 6월 11일, 비무장한 46세의 흑인 남성이 백인 경찰관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을 시작으로 미국 전 지역은 울분을 터트렸다. 그런데 수많은 시위와 청원과 동시에 문제가 제기된 것은 문화예술기관들의 침묵이었다. 미국 예술기관들은 공정성(Equity), 다양성(Diversity), 포용성(Inclusion)이라는 단어를 앞세웠지만, 근본적인 시스템의 불투명성과 인종차별은 변화하지 못했고, 백인 리더들을 중심으로 한 경영체계와 권력 행위로 비난을 받아왔다. 그리고 미국 전역을 뒤흔든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들은 역시나 침묵을 유지했고, 시민들과 예술가들은 소셜미디어와 언론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겉으로만 공정성, 다양성, 포용성을 외치는 예술기관들을 비난하고 불매하는 'Call Out(콜 아웃)' 운동을 펼치기 시작한 것이다.

브라질의 경우 기업의 사회봉사를 연결하는 SESC(Social Service of Commerce)라는 단체가 민간예술기관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극빈층을 위한 식량 기부와 건강과 위생교육을 위해 연대하고 있다. 기부할 음식을 가져오면 공연티켓을 할인해주며 유명인, 극장과의 연계로 빈곤층을 위한 교육을 실천한다. SESC의 네트워크에 참여 중인 극장과 예술가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시민들의 지지를 받으며 이 시대의 영웅으로서 가치실현을 하고 있다.

문화예술은 사회가 진화함에 따라 함께 변화하는 존재이다.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시민들의 일상에도 가치의 변화가 생겼으며 그들이 소비하는 문화가 사회의 중요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다면 더욱 긍정적인 브랜드로서 리더십을 제공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촉진할 수 있다. 세계적 위기 속에서 예술가와 예술단체, 그리고 시민들은 성숙한 연대의식을 통해 회복을 가속화하고 있다. 발코니에서 함께 노래를 부르고, 영상통화 앱을 통해 함께 악기를 연주하며, 잘못된 시스템에 용기있게 도전하는 연대를 통해 우리는 변화라는 희망을 공유하고 있다.

- 4) 세계보건기구 #TogetherAtHome <https://www.who.int/campaigns/connecting-the-world-to-combat-coronavirus/together-at-home>
- 5) 현대공연예술네트워크 Rescue the Arts : Plea to National Governments <https://www.ietm.org/en/rescue-the-arts-plea-to-national-governments>

코로나 시대, 문화예술활동 시민 인식 설문조사 보고서

원항미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연구원

시작하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삶의 변화가 일상적 규칙으로 고착화될 조짐이 보인다. 종식의 시점도 불투명하고, 문화예술활동 중단의 여파가 공연예술업계에도 불어닥치고 있다. 문화예술활동의 중단이 장기화되면서 이제는 코로나 시대에 맞는 문화예술활동의 변화와 재개가 필요하다.

부산문화재단은 영화의 전당과 공동으로 [코로나 시대, 문화예술활동 시민의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부산시민들의 문화예술활동의 변화는 어떻게 달라지고 있으며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어떠한 변화와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지에 대한 부산시민 1,100여명의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한다.

조사는 어떻게 설계되었나

이 조사는 2020년 7월 1일부터 19일까지 20일 간 온라인 설문조사로 실시되었다. 응답자는 총 1,106명이고, 문화예술계 종사자는 527명, 일반 시민 579명이었다. 총 1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크게 코로나 사태 이전 문화예술 활동 패턴, 코로나 사태로 인한 문화예술활동 변화 유무, 부산 문화예술계의 어려움과 필요과제, 코로나 사태 종료 이후 문화예술활동의 변화 예상 등을 묻고 있다.

주요 조사 결과

응답자의 94%가 코로나 사태 이전과 비교하여 문화시설 방문, 이용 빈도가 감소되거나 완전히 중단되었다고 응답했다. 코로나19 사태 속 문화예술계의 큰 어려움으로 부산 시민은 '외부 문화활동 참여 자제분위기'와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적 수입 감소로 문화예술 관련업체 경영난의 가중'을 꼽았다.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은 '경제적 수입 감소로

생계의 어려움과 관객모객의 어려움', '코로나와 상관없이 예술활동만으로 지역에서 살아남기 어려움'을 꼽았다.

온라인 관람문화의 경우 응답자의 63%가 온라인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했다. 온라인 관람문화에 긍정 응답 이유로 '안전에 대한 우려, 새로운 온라인 매체 등장, 비대면 분위기 확산' 등을 들었다. 온라인 관람문화 확산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으로는 '문화예술의 대체 불가능한 현상성, 온라인공연의 수익창출에 대한 우려' 등이 언급되었다.

현 상황에서 부산 문화예술계가 시급히 추진할 사안으로 '예술인 긴급 생계지원'과 '관람료 할인 등 시민참여 확대 지원' 응답이 높았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부산문화예술계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방역수칙 준수, 거리두기, 온라인콘텐츠 개발, 예술인생계지원, 예술활동재개' 등이 많이 언급되었다. 또한 '소규모 예술활동 활성화, 야외프로그램' 등 대규모 실내공연행사보다는 근거리의 소규모 문화행사, 야외 프로그램 재개에 대한 의견이 많이 도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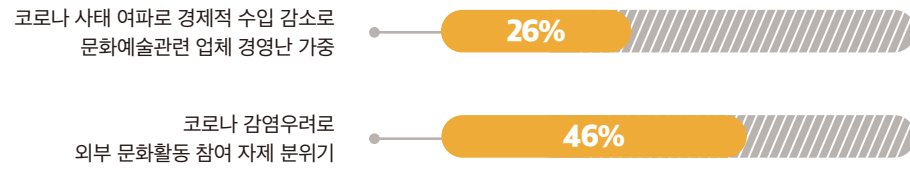
문화예술의 새로운 회복력을 만들어가야 할 때

그간 사회적 위기가 등장할 때마다 문화예술활동은 중단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사회적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회복되어야 할 일상의 모습에 문화예술도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라질 수 없는 보편적 일상이 문화예술 활동이며, 이를 위한 예술인 생계 지원 등에 대해서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7월 8일자 정례브리핑에서 활동종류별 감염위험도를 분석하여 발표하였다. 여기서 '관람'은 낮은위험도 활동으로 분류되었는데, 문화예술활동이 안전수칙을 지키면 충분히 유지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된 셈이다. 코로나로 인한 정서적 우울감을 극복할 수 있는 치료제로서 문화예술활동이 조속히 재개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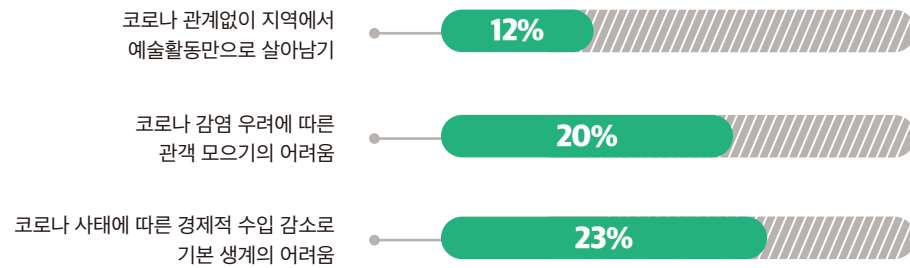
이번 코로나 위기는 문화예술활동의 새로운 판을 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예술활동의 본질 중 하나인 현장성에 대한 가치를 재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오프라인 예술활동을 즐길 방법을 고민하고, 모바일과 온라인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예술이 지속적으로 등장할 수 있는 판을 열어주어야 한다. 문화예술이 위기에서 새로운 회복력을 키울 수 있도록 예술계 안전 수칙 마련, 새로운 형태의 문화예술활동 개발 지원, 생활권 근접 소규모 예술활동 지원, 예술인 복지 등 정책의 적극적 추진이 필요하다.

○ 현재 코로나19 사태 속 부산 문화예술계의 가장 큰 어려움(주요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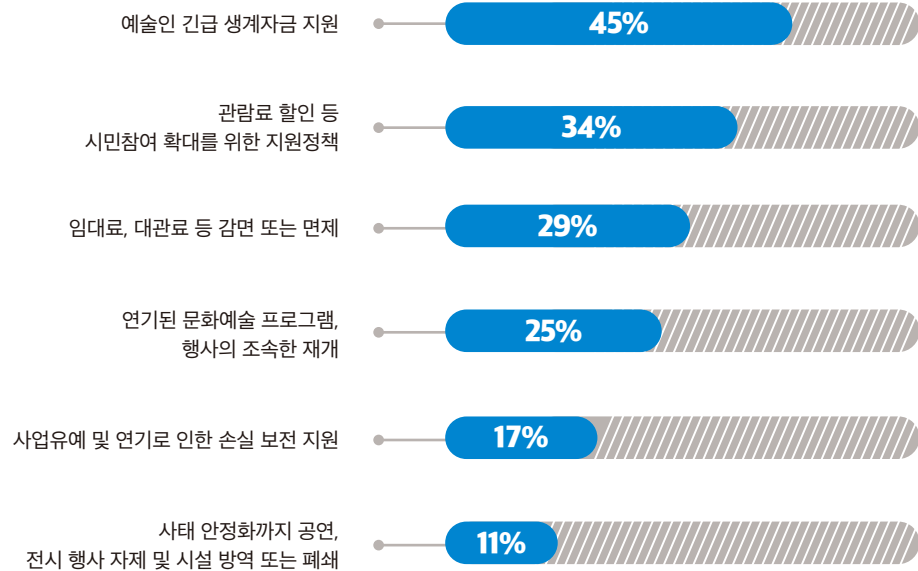
· 부산문화예술계 어려움 - 부산시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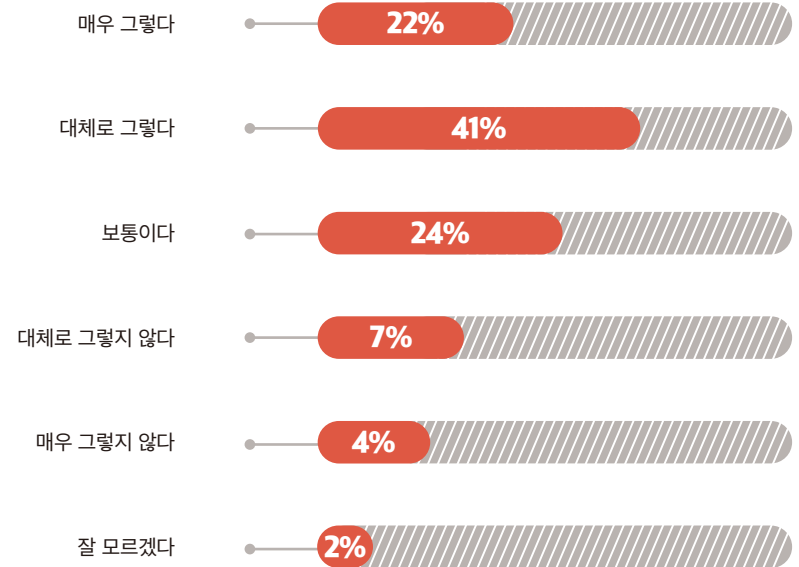
· 부산문화예술계 어려움 - 문화예술계 종사자



○ 현 상황에서 문화예술계에서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일은?



· 코로나 사태 종료 이후 온라인 관람문화가 확산될 거라 생각하십니까?



·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부산 문화예술계의 대응방안에 대하여(워드 클라우드)

문화예술계 대응방안 - 종합



문화예술계 대응방안 - 부산시민



문화예술계 대응방안 - 문화예술계종사자



그냥 내게도 예술이었다.

우정아 한국장애인복합문화센터장

내가 예술을 느끼고 즐기고 감동하는 것은 본능이었다. 나의 본능! 본능을 무엇이라고 정의해내는 것이 오히려 사족처럼 여겨진다. 그냥 내 마음 속에 있다가 어느 날 자연스레 시간이 흐르며 내 마음 안과 밖을 차지하며 나온 것이다. 20년 넘게 사회복지현장에서 사회복지사로 실천했던 순간들이 지금의 내가 하는 일을 위한 설계의 시간이 아니었나 회고해본다. 그 순간도 내가 원하고 만들어간 행복한 순간들이었다. 그런 내게 발바닥부터 차곡차곡 쌓아온 예술 경험들은 단호하게 내 삶을 바꾸어 버렸다.(사실 단호하고 쉬운 결정은 아니었음을 고백한다) 하지만 하루에도 열 두 번씩 사회복지와 예술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내 역할과 정체성에 대한 고민은 너무 막연하기만 했다. 그래서 예술가들의 삶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천천히. 예술가들의 에너지는 뭐라 말할 수 없지만 각각의 색깔이 너무 달랐고, 그 에너지에 대한 경험은 내 에너지의 총량이 부족할 정도로 강하게 점철되었다. 이렇게 나의 인생 2막은 시작되었다. 자유, 생경, 신기함, 도전, 격정, 조화, 감동, 새로움, 불안, 두려움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정으로 다가왔다. 시행착오투성이인 나의 연결의 시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장애인복지, 예술, 장애예술인, 장애인 예술, 예술인 등등으로.

장애의 경계를 넘어서는 예술의 힘

내가 장애인 예술 지원 사업 혹은 장애인복지를 실천하는 사회복지사다 라고 하면 사람들은 자주 이런 질문을 한다. 장애인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라고. 나도 사실 잘 모른다. 어떻게 사람과의 만남을 일반화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나도 부지런히 알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예의 바른 태도로 물어보려고 한다. 그런데 예술의 힘은 그렇게 묻지 않아도 사람에 대한 관심만 있으면 그 사람을 알게 되기도, 위로받게도 한다. 자연스럽게 연결이라는 지점이 생긴다. 예술은 장애 유무를 떠나 사람과 사람을 연결한다. 작품을 보며 감동의 지점을 나누고, 예술이 본인의 삶에서 의미하는 부분을 여러 표현 방법으로 이야기한다. 나는 예술 중매쟁이를 자처하며 예술인과 장애예술인들을 만나러 다니며 다른 사람의 인생에 깊이 개입하는 오지랖을 맘껏 발휘한다. 이미 사회복지현장에서 쌓아온 타인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오지랖을 익숙하게 발휘해본다. 그러나 생각보다 연결의 지점을 찾는 것은 괴발개발하듯 행보가 어려웠다. 다양한 예술인들의 장르를 이해하고 느끼기에 아직 난 하수임에 틀림없고, 시간 투자 총량도 아직 부족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글 서두에서 밝힌 것처럼 본능처럼 머릿속 설계도에 따라 어설피게 공작하는 과정을 계속 하고 있다.

장애예술인, 장애인예술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며

요즘 아주 재미있는 작업을 한다. 부산에서 장애인 예술, 장애예술인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장애예술인들, 장애인 예술에 관심 있는 사람들과 함께 고민하는 토크 콘서트 자리가 바로 그것이다. 1회차와 2회차 이슈메이커로 초대된 발달장애인 아티스트와 농인 아티스트의 예술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보고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발달장애인 아티스트인 '니 얼굴 그려주는' 정은혜 작가에게 누군가 물었다. 그림 그리는 것이 힘들지 않냐고. 정은혜 작가는 "왜 싫어요? 나 행복해요" 라고 대답했다. 은혜 작가는 학교를 졸업한 이후 삶의 고난과 존재의 미미함을 겪으며 상당히 어려운 시간을 통과했다고 한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엄마인 만화가 장차현실 씨는 그야말로 절망적이었다고 했다. 그러나 불과 6년 전부터 사람과의 관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다른 사람을 그리기 시작한 '니 얼굴'은 벌써 2,700여 개에 이른다고 한다. 은혜 작가에게 예술은 생존이자 존엄이고 치유였음을, 그리고 모두 공존하는 삶의 방식이었다고 두 사람은 고백한다. 이러한 고백은 예술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들었던 이야기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그래서 예술은 장애의 경계를 허문다. 정은혜 작가는 토크 콘서트를 마치고 몇 번이나 필자에게 속삭이듯 이야기했다. "이 시간이 나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라고. 이 말을 듣는 순간 정은혜 작가와의 감정이 나와 교차함으로써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꼈다. 정말 본능에 충실한 정은혜 작가의 고백이었다.

두 번째 이슈메이커인 농인아티스트 김지연 씨는 만나기 전부터 생경한 경험에 진행을 예측하기 힘들었다. 하지만 기차에서 내리고 있는 지연 아티스트의 환한 웃음을 시작으로 수어통역사의 통역이 무색할 정도로 참 잘 어울리는 사이라는 것을 이내 알았다. 그는 80-90세가 되어도 춤을 추는댄서이고 싶다고 했다. 수어통역사 두 명을 배치하여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경험에 대한 초조함으로 시작된 토크 콘서트는 시간의 문을 훌쩍 넘은 듯 몰입하여 아티스트의 삶에다가 있었다. 김지연 아티스트의 예술에 대한 열정, 춤에 대한 간절함, 농인에 대한 편견의 안타까움, 농인 예술에 대한 본인 역할의 진정성 있는 결의가 참여한 사람들의 에너지와 맞닿아 있음을 알았다. 사람들의 표정은 흥분돼 있었다. 누구도 소리 내어 말하지 않았지만, 농인에 대해 몰랐음에 대한 고백과 앞으로의 협력에 대한 암묵적 결의가 촉촉이 내려앉았다.

모두에게 더함도 덜함도 없는 같은 선상의 예술이기를

예술의 가치는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경계를 허물기도 하고 확장하기도 하는 역할을 한다. 앞으로 사람의 시선이 머무는 어느 곳에선지, 예술 본능이 존재하는 사람들 사이에 신나는 연결과 컬래버레이션이 있었으면 한다. 그냥 내게도 일상의 예술인 것은 그도 당신도 누구에게도 더함도 덜함도 없는 같은 선상의 예술이기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0년 5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12월부터 시행된다. 장애예술인들의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와 지원계획 수립, 창작활동 지원, 작품발표 기회 확대, 고용지원,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장애인 예술 지원법에 대한 기대도 사실 있지만, 나의 바램은 장애예술인, 비장애예술인 구분 없이 사람과 사람 간의 작은 연결이 일상에서 시냇물처럼 흘러흘러 높은 파고의 멋진 바다로의 향연이 되었으면 한다.



장애인 예술토크콘서트 '예술본능 토크 살롱'



장애인 예술토크콘서트 '예술본능 토크 살롱'

부산문화재단

차별 없고 안전한 극장 위한 지침 '부산연극판 CTS' 나온다(07.27.)

부산문화재단은 2020년 문화다양성 신규의제 '성평등'의 가치를 확산하고자 부산문화예술계 연극분야 종사자의 안전하고 성평등한 작업환경을 마련하는 <세이프 온 스테이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부산의 삶, 예술로 기억하다! 부산예술인 아카이빙사업 나선다(07.03.)

부산문화재단은 지역 문화예술계의 사표(師表)로 기릴 만한 예술인을 선정해 그들이 남긴 방대한 예술적 작업의 결과를 집대성하고 문화사적 위치를 재정립하는 '부산 예술인 아카이빙' 사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코로나19 극복 예술계 생태계 정상화 위해 하반기 지원 확대(07.08.)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 분야의 ▲ 생계 지원, ▲ 일자리 지원, ▲ 소비 촉진 등을 위해 3차 추경 예산 1,569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문체부 3차 추경 예산의 약 절반(45%)에 해당하는 규모다.

코로나19 이후, 예술의 가치와 미래를 논의한다(07.06.)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 이후의 예술계 위기에 대응하고, 현장과 함께 새로운 예술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예술 분야 기관 7곳과 함께 7월부터 12월까지 '코로나19 예술포럼: 예술의 가치와 미래'를 총 7회 연속 개최한다. 모든 토론회는 온라인으로 생중계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위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상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한 대관료 할인 지원 사업' 시범운영(06.1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은 공연예술계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상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한 대관료 할인 지원 사업>을 시범운영했다.

문체부·문예위, <힘나는예술여행> 통해 코로나19 의료진 예술로 응원(06.02.)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코로나19 의료진에 감사하는 덕분에챌린지 전시·공연, <힘나는예술여행>을 6월 3일 울산대학교병원과 동강병원에서 진행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코로나19 이후, 예술인의 복지와 사회보장>을 주제로 온라인 포럼 개최(07.23.)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7월 28일(화) 오후 2시, <코로나19 이후, 예술인의 복지와 사회보장>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무관중 온라인 포럼으로 진행되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제 5회 국제예술교육실천가대회(ITAC5) 개최 및 컨퍼런스 참가자 등록 안내(07.29.)

ITAC 국제운영위원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전 세계 문화예술교육가 교류의 장, 제5회 국제예술교육실천가대회(ITAC5)가 오는 9월 14일부터 17일까지 개최된다.

코로나로 위축된 문화예술교육활동 극복 '어디서든 문화예술교육', 누구나 새로운 상상과 접근성 확장(07.08.)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시민들의 문화예술교육 활동이 위축된 상황을 적극적으로 극복하고자 '어디서든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선보여 좋은 반응을 얻었다.

강원문화재단

강원문화재단, 언택트 시대 맞서 소통·배려·존중의 새로운 조직문화 만든다 (07.03.)

강원문화재단은 올바르고 즐거운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강원문화재단 존중문화 캠페인 'RESPECT MODE'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기문화재단

"문화가 함께하는 당신의 휴식, 경기도가 지원합니다" 비정규직·특수고용직 노동자 대상 휴가비 25만 원 지원(06.07.)

경기문화재단과 경기도는 올해부터 도내 비정규직 또는 특수고용직 노동자 1,600명을 대상으로 총 4억 원 규모의 휴가 경비를 지원하는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광주문화재단

우리 지역 문화, 함께 공부해요!(07.27.)

광주문화재단은 오는 11월까지 매달 마지막 주 월요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2층 도서관에서 '광주학 콜로키움'을 개최한다.

대구문화재단

대구예술발전소, 대구의 문화적 자산을 예술적 가치로 재조명한다(06.05.)

(재)대구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대구예술발전소는 6월 2일(화)부터 대구의 문화적 자산을 예술적 가치로 재조명하기 위한 <대구 리서치 프로젝트> 팀을 공개모집했다.

대전문화재단

2020 대전문화예술정책토론포럼 주관단체 공모(06.02.)

대전문화재단은 6월 23일까지 '2020대전문화예술정책토론포럼'을 기획·운영할 주관단체를 모집했다. '대전문화예술정책토론포럼'은 지역문화예술분야의 주요 논의사항들을 관계자 및 시민과 공유함으로써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추진해 온 토론형 프로그램이다.

서울문화재단

[잠실창작스튜디오] '재난과 장애예술' 라운드테이블 개최(7.3.)

서울문화재단 잠실창작스튜디오는 '재난과 장애예술'을 주제로 장애예술인을 위한 예술공간에 대해 논의하는 라운드테이블을 7월 3일(금) 오후 4시 잠실창작스튜디오 하늘연에서 개최했다.

전북문화관광재단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운영3기 비전선포 및 경영방향 (07.02.)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이 운영 3기를 맞아, 전북다움의 문화·관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졸탁동시(啾啄同時)'의 자세로 도민과 함께하는 플랫폼을 만들어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부산연구원

'1017까지 부산을 사랑하는 법' 책자 발간 (07.07.)

진정한 부산의 매력을 발굴해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단순히 먹고 즐기는 장소가아니라 부산의 생활상과 정서가 담긴, 부산다움을 느낄 수 있는 장소는 무엇이 있을까? 이런 고민으로 부산의 보물 같은 장소를 인문적으로 총망라한 책자가 발간됐다.

부산관광공사

부산관광공사, 지역 마이스 업계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 (07.07.)

부산관광공사는 코로나19로 부산개최 행사의 잇따른 취소·연기로 피해를 입은 지역 마이스 업계 지원을 위하여 '부산 MICE 위기극복 마중물'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Vol. 발행일: 2020.08.15. | 발행인: 강동수 | 발행처: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84-1(감만동)

5

TEL 051-745-7205~7 | www.bscf.or.kr | 편집위원: 송교성 송진희 이지훈 차재근 | 편집기획: 조정윤 원항미 | 디자인 제작: 순간과영원 TEL 051-244-7504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